[10] 2번째는 저는 20대의 높은 감염률을 잦은 ‘외출’ 이라 가정해보았습니다.

[11] 자료에 따르면 다른 연령층에 비해 20대는 월등한 외출량을 보였습니다. 하지만 실제 20대의 확진자 수도 많기에 연령별 인당 평균 외출 수를 계산해보았습니다.

[12] 그 결과 20대의 평균 외출량은 다른 나이대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.

[13] 평균 외출의 수는 사실상 코로나에 대한 관심도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,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뒤 각 계층별 네이버 검색량에 비추어 보았을 때

[14] 20대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높은 추이를 보였습니다. 이는 20대 전반에 코로나에 대한 관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, 그렇다면 코로나에 대해 관심이 있는 20대가 왜 확진자가 많을까요?

[15] 저는 대부분의 20대가 아닌 슈퍼 감염자가 20대의 높은 확진자 비율에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. 평균적인 외출 횟수는 같아도 슈퍼 전파자가 바이러스를 옮긴다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물론 그 결론이 성립되기 위해선 20대 감염자들이 외출한 곳이 사람이 많은 곳이 많아야겠죠?

[16] 그래서 위의 7가지 장소를 사람이 많은 장소로 정의하고 20대가 외출한 곳 중 비율을 계산해보았고, 약 60%였습니다.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,

[17] 실제 20대가 외출한 장소의 통계를 보면 etc가 가장 많은 600건으로 etc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기에 더 이상 사람이 많은 곳의 외출에 대한 분석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.

[18] 그래서 방향을 조금 바꿔, 20대의 외출지 중 마스크를 벗는 일이 잦은 곳의 비율을 계산해보기로 하였습니다.

[19]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장소를 아래 9가지로 정하고 비율을 보았는데 20대가 35%로 가장 높은 양상을 보였습니다. 이를 통해 20대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 시설에 대한 외출이 잦아 감염률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.

[20] 이러한 분석을 통해 마스크를 벗는 시설을 자제하고, 시설 입장 시 QR코드를 입력해 일정 수준 이상의 외출 시 제재를 주는 것이 코로나 방역의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